

목포시 상징물
백목련/비파/학



Contents

02 의장인사

04 제9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05 FOCUS / 의정활동 포커스

11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복지위원회
- 관광경제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 시정질문

30 주요안건처리

33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

34 의정활동 이모저모

36 2011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 ● ● ●
시민의 입장에서
● ●
시민을 위한
● ● ● ●
희망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의 장 인 사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가 가고,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1991년에 다시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목포시의회도 제9대가 출범한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과 제9대 시의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선배·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목포시의회를 성숙된 주민자치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그늘진 이웃과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인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 등 각종 서민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도 함께 추구해야 하므로,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힘을 모아 목포시가 모든 면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의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임과 동시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목포시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사전 점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실천에 옮김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우리지역 서민경제도 장밋빛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올 한해에도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여 시민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선진 도시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열정적인 삶을 일궈가시기 바라며, 목포시의회의 의정 활동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묘년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 1.

목포시의회 의장 배 종 범

제9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 의장단



의장 배 종 범



부의장 허 정 민

▣ 상임위원장 및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 승 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경 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고 경 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창 수



간사 여 인 두



간사 최 홍 립



간사 노 경 윤



간사 정 영 수

제9대 목포시의회 개원



제9대 목포시의회가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했다.

2010년 7월 2일 제9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22명 시의원들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현황 및 개원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으로부터 회의진행방법,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요령,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 등 총체적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기법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아울러 7월 7일에는 오전 10시 제2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당일 오후 3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집행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거행했다.

또한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오승원, 여인두, 최일, 정영수, 최홍림, 노경운, 조요한, 백동규, 강정자 의원 ▲기획복지위원회에는 전경선, 최홍림, 여인두, 오승원, 이구인, 성혜리, 서미화 의원 ▲관광경제위원회에는 고경석, 노경운, 김영수, 박정훈, 백동규, 강정자, 이방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박창수, 정영수, 조성오, 최일, 강찬배, 허정민, 조요한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원, 간사 여인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경선, 간사 최홍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고경석, 간사 노경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간사 정영수 의원이 선출됐다.



업무연찬을 위한 국내연수 실시



제9대 목포시의회의는 2010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 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 질문, 부의안건 심의 등 의정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초선 의원들은 향후 4년간 의정활동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재선 이상 의원에게는 아는 지식을 더욱 탄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의원 의정비 동결



목포시의회의는 2011년도 의원 의정비를 2010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목포시의회의에서 결의한 의정비 동결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동결을 결정했다. 목포시의회의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및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절차비용 9백만원 절감 및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편의 효과를 가져왔다.

「제5회 목포시 모의 어린이의회」 개최



목포시의회의는 2010년 11월 10일 목포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4명을 대상으로 「제5회 목포시 모의 어린이의회」를 개최했다. 주요안건은 의장선거, 개원식, 의원선서, 어린이 의장 개원사, 부의안건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참여 학생들이 시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동일하게 의사를 진행했다. 모의 어린이의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터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성과 거둬



목포시의회에서는 2010년도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면서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의하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로 전라남도 교육청 부담금 21억원과 목포시 세출예산 21억원 등 총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목포시의회의 입장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침을 두고, 2010. 12. 8. 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무상급식의 전면 당위성을 주장 설득한 결과 교육청 지원액 42억원, 목포시 예산 42억원을 확보하여 총84억원으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목포 밥퍼’ 나눔봉사활동 가져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틈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죽교동에 위치한 ‘목포 밥퍼’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죽교동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목포지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시의원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음식 나르기, 설거지, 뒷 마무리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 위로했다.

공생원, 성덕원, 경애원, 소망장애인복지원, 아동원, 동민 영아원, 태화모자원, 공생재활원 등을 방문해 담소를 나누면서 시설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문제 등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조율했다.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동경에서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신주쿠 장애인복지센터, 사이타마 생애학습 센터, 쿠라마에 물의관, 이케부르크 소방관, 다이은지 납골당, 가나카와 네트워크, 에노시마 마린요트시설 등을 방문했다. 이번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웃사랑헌금 기탁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백여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제9대 목포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지와 소신을 밝히면서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한 것이다.

제설작업 및 재난대책상황실 방문 격려



지난 연말연시에 기록적인 폭설로 시가지 주요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삽과 팽이를 들고 다니며 각 지역구 골목골목에서 제설작업에 비지땀을 흘렸다.

아울러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대책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폭설에 따른 대응대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목포클린의정발전연구회」 발족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목포시의회 연구모임인 “목포클린의정발전연구회”가 지난해 9월 25일 출범했다.

이 연구모임의 회장은 최홍림 의원, 간사는 이방수 의원, 회원은 서미화, 노경윤, 정영수, 최일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목포클린의정발전연구회”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 단체로 지난 2010년 9월 25일 서울시립대학교 양경숙 교수를 초청하여 복지분야 예산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고, 2010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완도군 보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성휘 도의원을 초청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효율적인 복지예산 편성기법 연구’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또한 2010년 11월 26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한 부모 가정의 아동학대에 따른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주2회 Clean-Study 날을 운영하여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목포시의회는 의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2011년 2월 18일 발족했다.

자문위원회는 양승주(목포대 · 자치행정분야) 교수가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전호문(목포대 · 산업체육), 고두갑(목포대 · 지방경제), 공병천(목포대 · 감사행정), 송재준(목포대 · 환경), 이현중(목포대 · 문화), 유창균(목포대 · 건축), 이정태(대불대 · 경영정보), 김판진(초당대 · 경영전략), 박준섭(초당대 · 사회복지) 교수, 허주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복지) 소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원회위원들은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정책 반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발족



목포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극복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12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이 발족됐다.

이 모임의 회장은 여인두 의원, 간사는 이구인 의원, 회원은 허정민 부의장, 강정자, 백동규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회원들은 2011년 1월

21일 구제역 초소를 방문 위로했고,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함평에서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자체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2011년 2월 19일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창립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가 초빙되어 “지역창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에서 이번 창립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지역성장의 동력은 지역을 일구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적 조직과 리더십인 만큼,

목포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조도시 건설의 성장발판을 구축하고 지역창생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기위해 마련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사항
-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계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위원장 오 승 원



간사 여 인 두



위원 최 일



위원 정 영 수



위원 최 홍 립



위원 노 경 윤



위원 조 요 한



위원 백 동 규



위원 강 정 자



활동내용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승원)에서는 의회운영,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총15회에 거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9대 의회를 개원하여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동료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

- 감사실, 기획관리국
- 주민복지국, 보건소
- 동 소관에 관한 사항



위원장 전 경 선



간사 최 홍 립



위원 여 인 두



위원 오 승 원



위원 이 구 인



위원 성 혜 리



위원 서 미 화



활동내용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전경선)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목포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현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복지관 신축 현장,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내 장애인 론볼 경기장 등을 방문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보건소 예방접종 영아사망사고 긴급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폭행사건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경위 청취 및 대안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복지위원회 현지활동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견학



▲ 목포시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



▲ 하당노인복지관 시설 방문



▲ 목포시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현장 방문



▲ 장애인 론볼경기장 방문



▲ 이랜드노인복지관 신축 현장 방문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사항

- 관광경제국
- 교육문화체육사업단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위원장 고 경 석



간사 노 경 윤



위원 김 영 수



위원 박 정 훈



위원 백 동 규



위원 강 정 자



위원 이 방 수



활동내용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고경석)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0년 7월 5일부터 목포↔부산간 노선을 폐지하고, 목포↔광주 송정역간 노선을 1일 4편의 열차를 축소 운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철도노선폐지 및 노선축소 반대 소위원회」 구성, 철도노선폐지 및 노선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근 11개 시·군에서 반대 서명을 받아 공동 대응했다. 또한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인 협조 요청 결과 철도청 운행노선을 재조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관광경제위원회 현지활동



▲ 영어체험마을 방문



▲ 강릉 테크노파크 선진지 견학



▲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공사현장 점검



▲ 평화광장 데크 현장 점검



▲ 해양음악분수 보고회



▲ 황포돛배 현장 점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박 창 수



간사 정 영 수



위원 조 성 오



위원 최 일



위원 강 찬 배



위원 허 정 민



위원 조 요 한

활동내용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창수)에서는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므로, 주변 불량주택 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도로공사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요구했다. 또한 상리하수도공사 1차 구간 준공에 따라 2차 구간 공사시 서전공업사 앞 구간 40m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에너지센터가 준공 되면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 되므로 악취문제 선 해결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지활동



▲ 신안인스빌 아파트 민원 간담회 개최



▲ 제설대책 보고회



▲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 점검



▲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 현장 방문



▲ 상리 하수천 정비현장 방문



▲ 양산 하수슬러지 처리장 선진지 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7회 임시회



- 기 간
 - 2010. 7. 20(화), 23(금), 26(월), 27(화) / 4일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성혜리
 - 간 사 : 이방수
 - 위 원 : 여인두, 정영수, 최홍림, 노경윤, 조요한
- 심사결과
 -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총 620,484백만원 중 112백만원 삭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 기 간
 - 2010.9.1(수), 9.6(월) / 2일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노경윤
 - 간 사 : 이구인
 - 위 원 : 여인두, 최일, 정영수, 최홍림, 백동규
- 심사결과
 -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원안가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기 간
 - 2010.11.24(수)~12.14(화) / 8일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강찬배
 - 간 사 : 최 일
 - 위 원 :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김영수, 정영수, 최홍림, 노경윤, 백동규, 서미화, 이방수
- 심사결과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총543,839백만원 중 3,756백만원 삭감
 -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
 - 총547,884백만원 중 6백만원 삭감

시정질문

(※ 시정질문은 의원 질문순서로, 주요 핵심질문을 발췌 게재함)

Q&A

목포시의회는 제288회 제1차 및 제289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시의원들은 목포시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비롯한 지역 숙원사업, 불편사항 등을 꼼꼼한 자료분석과 동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심도있게 질의했으며,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추진과정,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288회 1차 정례회 (2010. 9. 7. ~ 9. 17.)



백 동 규 의원

질문

현재 목포에 4개 대형마트, 2개의 SSM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시 상동 소재 입점계획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불허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 2009. 8월에 해당지역에 BK 큐브라는 회사가 대형마트 건축 심의를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시는 전통시장과 영세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심의절차를 유보했습니다만,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 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심의를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결정됐습니다.

– 하지만 우리시는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절차 및 교통처리계획 등 보완사항이 조건부 의결로 남아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정질문 Q&A



최 일 의원

질문

목포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증가, 목포신외항 화물차량, 대불산단 및 각종 조선소 자재차량 등 차량증가로 인하여 북항일대가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 약 58억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서 기존 완충녹지 폭을 줄이지 않고 뒤로 미루고 35미터 6차로를 45미터 9차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전문가,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안 외에도 최선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서해안고속도로와 북항 고하로를 통해서 목포대교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남해안 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신안군 압해면에서 목포, 울도와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 화원으로 가는 도로를 조기에 개통해 주도록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정 자 의원

질문

목포시가 청소업무 외주위탁을 시키면 시 입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이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만약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탁을 받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이윤을 남겨야 될 것이고, 사람도 가능하면 적게 써야 될 것이고, 장비도 가능하면 적게 투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외주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요 한 의원

질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환경에너지센터가 삼향동에 모두 설치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기는 주민이 목포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향동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쓰레기 처리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할 때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지위원회를 선정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우리시는 RDF 방식으로 전처리 폐기물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되는데,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어 거기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는 소각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박서는 공해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동안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동정보고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내화춘마을, 대박산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홍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 인 의원

질문

의무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책무이다. 목포시는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은 현시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목포시의 교육부문 지출은 타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이다. 학교무상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은 결국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서 시장의 공약사항 이었다.

공약사항 이행을 믿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답변

－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목에 초·중학교를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방침은 무상급식비용에 대한 예산부담은 국가나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25%, 시에서 25%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Q&A

– 따라서 201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전 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전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내에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 목포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상급식이 너무 벅찬 일이고, 도나 전남교육청에서도 일정한 예산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이 목포에 하루빨리 관계된 예산이 지원돼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 하십시오.



서 미 화 의원

질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 제6조에 근거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그동안 미 이행한 사유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이 누락된 사유와 대책은?

답변

–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고, 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마는 처리기간이 3일이라 촉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화로 통보해서 협조를 부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서로 즉, 홍보지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배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횟수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전체 사항을 점검해서 내년 초부터 그 유지 관리도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 인 두 의원

질문

서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서울사무소는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는 오피스텔 14평짜리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하고 또 차량운영비를 집행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보다는 서울이 모든 비용면에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금년부터는 대폭 개선해서 작년대비 8월 현재까지 1천3백만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

해양음악분수의 물기둥 높이가 35미터일 때 전체적으로 풍속이 초당 2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방울의 직경이 500마이크로미터이고 대기온도에 미치는 범위는 약 130미터, 0.001킬로그램의 물방울이 미치는 범위가 약 75미터입니다.

또한 50미터 물기둥의 높이가 있을 때는 조금전에 초속 2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물방울의 직경이 500마이크로미터, 대기온도에 미치는 범위가 140미터, 0.01킬로그램의 경우는 90미터입니다. 이럴 때 물기둥의 높이에 따른 예측결과 풍속 및 물방울의 직경에 따라 물방울 흩어짐의 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물기둥이 높이 및 분사되는 형태 주변의 기상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셨나요?

답변

— 풍속에 따라 계속해서 풍속을 책정하는 장치를 우리 시설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6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물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또 4.2미터가 초과됐을 때는 분수높이를 조절해서 가동합니다.

— 실제로 해양음악분수가 가동되기 이전에도 바람이 부는 날은 바닷물이 데크에서 손에 묻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했기 때문에 2미터라고 했습니다만 4.2미터까지만 정상가동하고 거기에 초과되면 줄이고 6미터가 넘어가면 나무에 되도록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Q&A

제289회 2차 정례회 (2010. 11. 18. ~ 12. 21.)



전 경 선 의원

질문

삼양사 일대 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아파트 건축 허가를 무리하게 승인해 주면서 행정에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를 주면서 삼양사에 1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허가 당시 민원과 관련된 책임부분에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각서가 있는데 건설사에 110억원 및 재판과정의 비용일체를 변재하게 할 의향은?

답변

- 목포시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았던 공증각서에는 '사료공장 가동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 관련 주민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배상부담책임을 진다' 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공증각서의 법적인 효력과 내용에 관련해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실효성을 확인하고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삼양사와 보상 및 협상이 전부 끝나면 책임여부를 묻겠다.
- 시는 삼양사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비로 1천8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겠다.
- 또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110억원 중 영업보상비에 해당하는 62억원에 대해 공증각서를 근거로 건설사에 청구하겠다.



성 혜 리 의원

질문

목포시가 교육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 공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내 우수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특상위 5%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또 시가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채용은 예산투입에 비해 현장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어활용대회 역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폐단을 낳고 있어 교육전반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 시는 현재 교육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과 수능시험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제 뿐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시 장애인 자녀, 불우이웃 계층의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 또 외국인 강사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협의할 문제이다.



강 찬 배 의원

질문

최근 목포시의 예산을 보면 과다한 채무이자 및 원금부담상황이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은닉·탈루 세원발굴, 세외수입원 개발 등 세입의 증대 방안을 강력 추진할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조정을 통한 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건의하겠다. 또 정책사업의 국비 확보비율 확대와 민자유치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세출분야에서는 건축예산 편성, 신규사업 투자 지양,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둘 것이며 시비의 부담이 과다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은 선별 유치 및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예산 중 고소득층에서 지원되는 노인 목욕 이미용권 양육수당 등의 복지 혜택금을 점차 줄여나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겠다.



조 성 오 의원

질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고물상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물상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까지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분뇨 및 쓰레기 시설, 고물상은 언제든지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폐기물법이 아닌 다른 상위법을 적용하여 이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고물상 대부분이 수집운반용 리어커, 대형폐기물 등의 노상 적치물들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면 도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 또 고물상에 설치된 계근대 등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적법 여부와 고발조치 등 앞으로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시정질문 Q&A



최 일 의원

질문

목포시가 정부의 교부세 감면 등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시계획도, 소방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다. 특히 현재 목포시는 44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 23개 사업비 43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목포시의 연간 지방세 수입 1천200억원중 인건비 등을 제외할 경우 가용예산은 50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이들 예산 중 교육과 사회복지에 사용할 예산이 41%정도 차지하다 보니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심성으로 이뤄질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답변

－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임기중 신규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다.

－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중·장기간 중단된 사업들의 경우 현재 44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23개에 43억원만 확보되었고 21개의 도로를 추진하려면 15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 우선 예산 내실화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시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이 철거된 사업, 도시개발이 우선시되는 지역, 설계가 완료되고 노후건물과 민원이 많은 지역, 보상중에 중단된 사업중 오래된 사업 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 동 규 의원

질문

해년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목포시의 세입도 줄어드는 등 목포시의 지방재정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목포시가 해양음악분수대 설치, 어린이 바다음악 분수대 건립, 원도심의 쌍둥이 빌딩 건립 등 추후 관리 운영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불필요한 건물건립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답변

－ 현재 목포시의 예산은 재정교부금 126억원, 보조금 1,726억원 등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가용하는 예산은 약4,411억원 정도이다. 이 중 필수경비 1,200억원, 보조사업 2,470억원, 가용재산 744억원으로 투자 및 출산, 교육사업 예술단체 축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께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는 아니다.

－ 최근 목포시 재원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국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2007년부터 상부 자치단체 예산이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국가의 감세정책과 신규사업 시행시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지방재정 현상이지 목포시의 재정운용이 심각한 상태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 구 인 의원

질문

목포시가 행남사와 삼양사 주변 일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오성산업의 소음과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오성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협상이 수년째 답보상태이다. 오성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시가 협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수반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답변

－ 오성산업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과는 사실 큰 연관이 없다. 이미 오성산업은 1997년 1월에 현재의 부지로 이전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도축장 설치 및 운영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시가 강제로 이주하라고 할 수 있는 현행법규가 없다.

－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성산업과 이전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업주 측에서 무리한 영업보상 및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 현재 오성산업은 51억원의 협상가를 제시했고 목포시는 감정결과 평가를 토대로 37억 4,500만원의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측에서 협상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원칙은 감정평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를 보상해 이전을 추진해 협상이 끝나면 예산을 마련하겠다.



이 방 수 의원

질문

축제운영에 관해서는 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축제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관에서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게 되면 축제준비과정에서 행정적 낭비로 이어지는데 향후 축제추진 위원회의 활용방안은?

답변

－ 현재 행안부에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축제 개최시 목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 또 축제추진위원회로만 축제를 준비하는 데는 전문인력의 채용 및 활용, 조직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특히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인화 전환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역시 관에서 많은 부분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행사 1년 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축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정질문 Q&A



고 경 석 의원

질문

해양문화축제가 2006년부터 시작돼 목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음식물 부스 운영상의 잡음과 목포만의 먹거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정적이다. 또 부스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상권의 경기가 되레 타격을 받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스를 줄이고 목포의 명인명가 식당들을 축제 먹거리 장으로 끌어들이л 유인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 해양문화축제 초창기 단계에서는 동 자생조직이 대부분 참여했으나 인력동원, 특색있는 음식문화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공공단체를 통한 부스 공개모집을 실시해 2010년 104개의 음식부스가 운영됐다.
- 특히 목포의 음식문화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점과 명인명가 음식점의 입점을 권유했지만 입점을 꺼려했다.
- 지속적으로 목포만의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따라 올해는 목포의 5미를 중심으로 한 음식점의 참여를 위해 부스를 대폭 줄여 특색있는 음식만을 선정하고 수도요금, 부스운영에 따른 기자재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높이겠다.
- 또 부스 운영을 대폭 줄여 잡상인식 음식문화를 지양하고 축제장에서 맛 볼 수 없는 음식을 축제주변 상권에서 맛볼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의 충돌도 방지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여 인 두 의원

질문

현재 목포시가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목포 장학재단이 목포시가 직원운영 등 재단전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되지 못하는 등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사로 참여한 이사진 대부분이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고 있어 도덕적인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01년 재단을 설립한 순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모금사업, 종이저금통 3만개 배포 등을 통해 재단운영의 묘미를 기하고 있는데 재단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자생력을 강화할 방안은?

답변

- 일단 순천시의 경우 재단설립의 역사가 목포와 다르고 순천의 경우 다양한 기업체를 통한 후원 등 지역경쟁력 기반이 다르다는 외부 환경적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목포시도 순천을 벤치마킹해 다양한 기금 모금사업과 후원회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목포장학재단에는 15명의 이사진이 있다. 이사진이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항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이사진이 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영수 의원

질문

- 목포시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교육발전분야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종득 시장 취임 이후 목포문화예술에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고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향 목포에 걸 맞는 문화예술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 목포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정책 5개년 발전계획 등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서 문화발전을 고민하는 문화예술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답변

- 집행부에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단체와 의견을 공유한 결과 내년 상반기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의회, 문화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대어 문화예술 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예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 예술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유달산 주변에 문화예술관련 시설,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마련, 달성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이 건물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 예산은 약2천여 만원으로 내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연구용역이 끝나면 문화관계 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 달성초등학교를 종합예술센터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할 방향을 갯바위문화타운에 종합예술센터를 건립할 것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주요 안건처리

제287회 임시회 (2010. 7. 20. ~ 7. 28.)

☞ **목포↔부산간 철도노선 폐지 및 목포↔송정간 노선축소 반대결의문 채택**

목포↔송정간, 목포~부산간 노선은 남해안권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동서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교통망이므로 축소 및 폐지운행에 대한 철회를 요구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우리시 금고 지정방법, 선정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목포시의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대상 정보화능력 경진 대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대회의 운영 및 그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목포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아동·여성폭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황포돛배 관리·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그 운영조례를 폐지

☞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으로 점용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



주요 안건처리

제288회 제1차 정례회 (2010. 9. 1. ~ 9. 17.)

☞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우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09년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전면 보완하여 목포시 시민의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

☞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담배소매인 지정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목포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010. 11. 18. ~ 12. 21.)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목포시 통반장 위촉시 하한연령은 있으나 상한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도록 하여 통장의 정년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위촉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고자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안전처리

☞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함.

☞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료보호세대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함으로써 의료혜택은 물론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더 많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취약계층의 65세이상 노인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폭 확대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와 체납방지를 통한 의료사각 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

☞ 목포시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 원안가결

목포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을 촉진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역 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에 따른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



목포~부산간 철도노선 폐지 및 목포~송정 무궁화호 노선 축소 계획 철회 촉구결의문 발표 (2010. 7.)

- 철도공사는 목포~부산간 노선을 존치하라.
- 목포~광주 송정역간 노선축소를 철회하라.
- 철도공사는 철도 노선 운행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라.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문 발표 (2010. 7.)

- 정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재 실시하고, 변칙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재심의를 촉구한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복지와 지방재정 지원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문 발표 (2010. 9.)

-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 예고 없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목포(임성리)~보성 간 복선 전철」 조기 건설 건의문 채택 (2011. 2.)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포(임성리)~보성 간 복선 전철 건설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조2,97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단선 완공 후 복선 전철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공정률은 겨우 5% 정도로 2015년까지 단선개통 마저도 가능할지 우려됨에 따라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의정활동 이모저모



▲ 목포~부산간 철도노선 폐지 철회를 위한 목포역장 방문(2010.7.9.)



▲ 故김대중 前대통령 동상 제막식
(2010.8.28.)



▲ 동 행정구역 조정보고회 (2010.9.14.)



▲ 제3회 목포노인건강축제(2010.10.5.)



▲ 4대강 예산 및 MB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서명운동 (2010.12.15.)

2011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월 별	회 기 명	기 간	주 요 내 용	일 자	활동일 (평일)	일자 누계
계	6회			90	66	90
1월						
2월	제290회 임시회	2. 15. ~ 2. 18.	• 시정연설 •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 일반안전처리	4	4	4
3월	제291회 임시회	3. 18. ~ 3. 31.	•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 일반안전처리 • 시정질문	14	10	18
4월						
5월	제292회 임시회	5. 25. ~ 5. 30.	• 일반안전처리	6	4	24
6월						
7월	제293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7. 1. ~ 7. 20.	• 행정사무감사 • 일반안전처리 •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	14	44
8월						
9월	제294회 임시회	9. 19. ~ 9. 30.	•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 일반안전처리 • 시정질문	12	10	56
10월						
11월	제295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11.18. ~ 12. 21.	• 주요업무(예산)보고 청취 • 2012년도 본예산안 •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 시정질문 • 일반안전처리	34	24	90
12월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